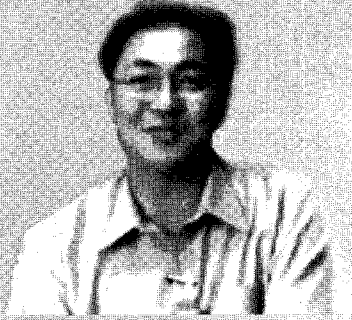


기고문

내가 침해자라고?



백건수(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어느 날 여러분의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해 열어 보니 '경고장'이라는 제목 아래 '만약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시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터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개 특허출원 경력이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하여 대처 아닌 대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다가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는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경고장을 받은 즉시 변리사에게 상담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변리사는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내용적으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준다.

침해라고 인정되면 우선 사업 중단 내지는 화해를 해야 한다. 침해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는 인정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침해 주장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산업재산권을 왜 취득하겠는가? 한편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면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다른 법률적인 침해 면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침해라고 인정되면 우선 사업 중단 내지는 화해를 해야 한다. 침해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는 인정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침해 주장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산업재산권을 왜 취득하겠는가? 한편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면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다른 법률적인 침해 면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그 권리가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무효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인 것이 '신규성'이다. 신규성이란 특허출원 내용이 출원일 전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 권리가 출원일 전에 알려져 있었는가를 변리사와 협력하여 찾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약 공지 자료를 발견하였다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이 공지 자료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굳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소위 '공지제외설(신규성이 없는 권리는 무효 확정되기 전이라도 침해 주장을 하지 못한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판례에 따라 침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사업 준비 시기와 권리의 출원 시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권리의 출원 시점에서 자신이 사업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으면 선 사용권이라는 법정실시권을 가지게 되므로 침해자가 되지 않는다.

기타 여러 가지 법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여야 하고, 비전문가에게 함부로 법률 자문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서 권리자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경고장을 송부하지 않도록 권유해야 한다.

일본서 간단한 비만측정 계산법 개발

일본의 도라노몽(虎ノ門) 병원 연구팀이 허리둘레(cm)를 신장(cm)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비만측정 계산법을 개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달 17일 보도했다.

병원측은 종합검진을 받은 사람 8,500명의 허리둘레를 일일이 측정해 이를 키높이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과의 연관관계를 밝혀냈다. 연구 결과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수치가 0.5이면 정상이고, 0.5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정된다.

신장 170cm에 허리둘레가 85cm인 체형을 갖춘 남성의 경우가 0.5에 해당한다.

0.5 이상에서는 성인병 위험인자인 고혈당 증세를 보인 사람이 10.5%로 0.5 이하의 5.9%와 비교해 배 가까이 많았다.

또 중성지방이 많은 사람도 0.5 이상에서는 25.7%인데 반해 0.5 이하에서는 13.4%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 개발된 계산법은 간단한데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는 종전의 보편화된 방법이 비만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허리둘레를 계산에 넣지 않은 맹점을 보완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평가했다.

인터넷 광고, 네티즌 눈길 사로잡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인구가 2,600만명(인터넷 이용률 59.4%)을 넘어서는 등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시장도 지난해 2,000억원을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15%에서 25% 증가한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네티즌의 관심과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 관련 특허출원은 98년 이전에는 거의 전무하였으나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 말까지 1,586건이 출원되었다고 밝혀졌다. 배너 형태의 광고 출원 비중(45%)이 가장 높으나 게임, 복권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광고기법도 출원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로또복권 및 로또 관련 광고 기술도 13건이 출원됐다.

국내의 개인 출원이 78%, 중소기업 출원이 22%를 차지하여 인터넷 광고 관련 기술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등록건수는 40건으로 1999년도 출원분이 6건, 2000년도 출원분이 34건이며 2000년도 하반기 출원분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등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기술별 동향을 살펴보면 배너광고 및 동영상 배너광고를 홈페이지에 단순 게재하여 네티즌의 클릭에 의하여 광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출원이 45%(766건)로 가장 많았으나, 게임, 복권, 채팅, 캐릭터 등을 이용한 다양한 광고기법 기술이 개발되어 출원되고 있다.

새로운 광고기법은 높은 광고 효과 때문에 광고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점차 이와 관련된 특허 등록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에 권리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심장병 등에 효과있는 녹차, 관절염 예방 효과 있다

녹차가 심장병, 암, 뇌졸중 뿐 아니라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셰필드대학의 데이비드 버틀 박사는 녹차에는 EGCG(egigalocatechin gallate)와 ECG(epicatechin gallate) 등 골관절염을 차단하는 두 가지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지난달 16일 보도했다.

버틀 박사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두 가지 물질은 관절의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막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시험관 실험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는데 특히 EGCG는 관절의 부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다른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일도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틀 박사는 질병을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녹차를 꾸준히 마셔야 한다면 관절이 심하게 손상된 뒤에는 때가 너무 늦으며 따라서 장기간 녹차를 마시는 것이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틀 박사가 재직하고 있는 셰필드대학은 이 새로운 골관절염 치료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 연구에 자금을 일부 지원한 영국 관절염연구소는 초기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대폰 특허기술 매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달 20일 텔슨 전자, 브이케이, 아세텔레콤 등 3사와 보유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분야 특허기술 142건의 권리 지분 50%를 40억원에 판매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전 대상 가운데 일부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외국에도 특허등록을 마친 기술이 포함됐다고 ETRI측은 설명했다.

ETRI는 지난해 국내특허 1,273건, 국제특허 367건을 출원했으며, ETRI의 특허등록건수는 현재 국내 1만805건, 국제 2,473건에 달한다.

ETRI 오길록 원장은 '이번 기술거래는 정부출연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판매한 사례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라며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택한 덕분에 기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물분야 특허출원 급증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광물을 이용한 질병치료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82년부터 2001년까지 광물분야 특허출원 405건 가운데 80년대에는 연평균 6.4건이 출원되는데 그쳤으나 이후 연평균 21.4건으로 늘어났다고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특히 지난 99년부터 해마다 50~65건씩 출원돼 연평균 출원건수가 55.3건이나 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출원된 특허의 광물 원료로는 활석이 24.6%로 가장 많고, 황토 16.7%, 운모 13.5%, 백반 8.8%, 석고 7.4%, 유황 6.6%, 방해석 5.4%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원인별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발명가의 출원이 61%를 차지했다.

한국 국제특허 출원 세계 8위

지난해 해외 각국에 출원한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난달 18일 '한국은 지난해 총 2,552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전체 국제특허출원의 82.6%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 대기업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지난해 특허출원은 각각 1,084건, 1,025건으로 확인됐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기업 순위에서는 필립스전자가 1위에 올랐으며 지멘스, 보쉬, 에릭슨, 마쓰시타전기, 소니, 노키아, 3M, 바이에르, 프록터&갬블 등이 10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